

용성 스님의 대각교당은 독립운동의 근원지

선농불교 사상으로

이주민 보급자리 제공하고

독립투사 쉼터 역할도...

일본불교계 맞서 포교 힘써

“용성 스님의 연변지역 대각교당은 독립운동의 근원지이자 해외포교의 효시이다”

일제 치하 연변지역의 불교는 미진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지역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나누면서 불법을 전파한 스님이나 포교사들이 상당 수 있었다. 특히 대각교운동을 펼친 용성 스님은 그 대표자로 꼽을 수 있다.

연변지역 유수학자들과 한국 불교계의 공동 주최 하에 용성 스님의 대각교운동을 재조명하고 연변지역 불교의 포교현황과 과제를 짚는 학술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7월 18일 열린 이날 행사에서 대각사상연구위원 원장 보광 스님(사진)

은 “용성 스님이 건립한 연변의 대각교당은 독립군들의 은신처로 독립운동의 기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변 대각교당은 용정지역에서 1927년 3월 시작해 9월 11일에 봉불식을 개최했으며, 당시 300여 신도와 70동의 토지를 소유한 농장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대각교당은 단순한 포교당이 아니라 용성 스님의 해외 민족 독립운동 지원사업지 역할을 하였는데 독립운동가들에게 음식과 의복과 자금을 공급하고 쉼터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용성 스님은 이곳을 중간기지로 독립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도 활용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당시 스님을 모시던 이동현 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용성 스님은 걸인이나 손님에게 이유를 묻지 말고 약과 옷, 그리고 돈을 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독립운동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이러한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 책임자인 김구 선생에 까지 보고돼 김구 선생은 해방 후 중

로 대각사를 방문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당시 연변불교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불교가 침체 일로를 걸었기 때문에 불교신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찰을 세우지도, 승려를 모시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1920년대 일본불교계는 자선사업을 앞세워 이런 연변지역에 급속도로 전파된다. 일본불교계는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첩보활동이 중심으로 반일투쟁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조선불교계와 포교 경쟁을 벌였다.

보광 스님은 당시 연변불교 현황에 대해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의 불순분자를 색출하고 독립운동가들의 비밀을 탐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중 종교를 통한 방법을 선택했다. 특히 연변의 용정에서는 한일불교계 간의 포교경쟁이 치열했는데 당시 일본 불교계 신도는 170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하지만 귀주사와 대각사가 각각 중심이 돼 조선족이 단결해 일본 불교계의 정토정, 선종파의 이런 목적 달성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 근간에 용성 스님의 선농불교 사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용성 스님은 조국을 떠나 살길을 찾는 이주민들에게 삶의 보급자리와 일자리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 변화했다”며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새로운 불교 포교의 방법임을 실현한 곳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님은 끝으로 “용정 대각교당의 유지관리 및 사상적인 계승은 지속됐지만 언제까지 유지됐는지 현재 알 수 없으며 정확한 위치 조사와 발굴은 선결과제로 남았다. 이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한 정선계승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명철 연변대 민족학 연구소 소장은 “연변불교문화에 대한 역사적 성찰” 발제에서 “연변지역의 오랜 불교신앙전통에도 불구하고 합법화된 불교활동장소가 없어 불교는 가정에서 불공을 드리는 수준”으로 “조선족사회에는 정신적인 기둥이 될 수 있고 신념적인 얼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가 시급하다”며 한국불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대각교당의 위치에 대한 연



구결과도 발표했다. 김석주 연변대 이학원 지리학과 부교수는 “연변지역 불교사찰의 공간적 분포와 대각교 연구” 발제에서 “대각교당의 선종단 위치에 대해 안도현 명월진 도흥촌 혹은 명월진 시가지 내의 구룡가도라고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백용성 연구의 회고와 전망” 발제를 통해 “용성 스님의 사상은 지금까지 연구의 불모지였다”며 “조속한 연구가 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용성 스님과 대각교운동

용성 스님(1864-1940·영정)은 16세에 해인사 극락암에서 출가해 전통수행과정을 마치고 불교 문화운동과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만해 스님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해 3·1운동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스님은 옥고 생활동안 불교혁신운동과 불교사상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특히 대중화를 위해 대각교운동을 발원한다. 대각교운동은 불교를 새롭게 인식해 개개인의 운명과 시대를 새롭게 재각하자는 의미다.

스님은 일본불교의 조선불교 합병에 앞장선 원종을 ‘대중역조’로 규정하고 만해, 성월 스님 등과 함께 임제종 운동의 선두에 섰다.

1911년 종로에 대각사를 창건, 불교의 ‘불(佛)’이 ‘대각(大覺)’과 같음을 선포하며 대각교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스님은 1922년 용정에 대각교당을 창건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독립군을 지원, 대각사상을



널리 피고자 했다. 또 스님은 1926년 2차례에 걸쳐 ‘승려들의 파계생활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불교종단의 정화를 위해 힘쓰고 대치승의 범용계승을 인정하는 일본의 종교정책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교의 대중화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삼장역회를 설립, 한문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저술활동에 나섰다.

국의 문화재 환수 위해서는 민관협력 기구 절실

문화재 환수 정책포럼과 토론회서 대두, 국제협력 강화 골자 서울선언문 채택도

“약탈문화재 환수는 매우 어렵고 긴 시간과 인내를 요구한다. 정권 임기내 모든 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다 보니 5년 대어, 인도 등의 졸속적인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제법 등에 전 문성을 가진 전문가와 외교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약탈문화재 환수 운동을 다각적으로 펼쳐야 한다.”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 문화재를 환수 또는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포럼과 정책 토론회가 연이어 열린 가운데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과 민관협력의 기구 창설에 대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사진)은 7월 2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민관 합동기구 창설을 제시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연구소장은

“이제부터라도 국제법 등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와 외교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약탈문화재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황 소장은 “문화재 환수의 당위성은 문화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아니다. 문화재 환수운동을 민족주의 국가주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전쟁과 불편한 감정만 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에 따라 환수 상황이 다르며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의 기구 창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구 창설과 함께 정기적인 포럼, 합동연구 등이 진행되어야 하며 때에 따라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연구소장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대신하는 문화재 환수의 근간 사상으로 ‘문화권’을 주장했다. 문화권은 그 문화를 창달한 주체가 문화를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시키고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황 소장은 “문화재 환수 운동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가 쉽고 자유로운 것을 보장하는 권리”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27조에서도 ‘모든 인간은 사회공동체의 문화 생활에 참여하거나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환수의 기본은 세계인, 또 국민에 수혜가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수 후 활용도 대표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소장은 “환수된 문화재는 국민

을 대표하는 곳에서 보관하고 연구 활용돼야 한다”며 “문화재 환수를 하는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은 모두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사말에서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올해는 한일합정 회담 이후 가장 많은 문화재가 돌아온 해로 가히 문화재 환수의 원년이라 불릴 만 하다”며 “문화재청은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20년 만에 외규장각 도서가 한국에 돌아오고 마추피주 유물이 폐루에 돌아가는 등 국외 문화재 환수는 긴 시간을 요한다.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울때 빼앗긴 문화재 환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 환수법을 발의 중인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은 축사에서 “세계



적인 이론 형성과 더불어 개별적인 실패 사례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19일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문화재 환수 국제포럼’에서는 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국제 협력 강화해 내용을 호한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

노덕현 기자

최기표 교수 번역서,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최기표 금강대 교수(사진)가 번역한 <역주(譯註) 차제선문(次第禪門)>이 2011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역주 차제선문>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의 세 번째 금강학술총서로, 선바라밀의 수행 차례를 풀이한 법문 <석선바라밀차제법문(釋禪波羅密次第禪門)>을 최초 완역한 것이다. 중국 천태종의 실질적 개조인 천태지의 대사가 설하고 그의 제자 관정 스님이 정리한 것

을 최기표 교수가 역주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2011년도 우수학술도서에 인문학 114종, 사회과학 144종, 한국학 80종, 자연과학 62종 등 총 400종을 선정했다.



노덕현 기자

보조국사 지눌 禪 수행 지침서 서울문화재 된다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수행 지침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7월 21일 지눌 스님의 <목우자수심결>을 비롯해 불교사적 가치가 높은 책 4권이 함께 묶여 있는 ‘<선종유심결> 등 합철’이 시 문화재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목우자수심결>은 1483년 경남 고성 벽운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정혜승수와 돈오점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합철본은 지눌 스님의 글을 비롯해 복송 연수 스님이 지은

<선종유심결> 학암 화상의 <경주 양산확안화상심우도송병서> 한림 학사 양역의 <무상대사 행장> 등을 하나로 묶은 목판본이다. 서울시는 네 작품이 함께 묶인 예가 없는 점으로 미뤄 합철본 자체도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한 시민이 기부로 가지고 있다가 최근 문화재 등록을 신청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개인소유지만 관리하는 시에서 맡게 된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8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30명(선착순) ◆원서접수: 2011년 8월 3일까지
- ◆개강일시: 2011년 8월 4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급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

각성 큰스님 “육조단경(六祖壇經)” 고운사 특강

《육조단경》은 혜능선사가 돈오(頓悟)와 견성(見性)을 기치로 남종 선을 부각시키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보조국사 지눌스님께서는 고려불교의 교종과 선종의 분열 속에서 혜능선사가 머물던 산의 이름을 딴 조계산의 송광사에서 정혜결사를 열었습니다. 그때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육조단경》입니다. 특히 육조단경은 일체법의 무상무념을 밝힌 구절이 유명합니다.

‘깨달음에는 본래부터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도 역시 바탕이 아니다. 본래 활짝 열려 아무 것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나 티끌이 있을손 가.’ 따라서 미래의 한국불교를 짚어지고 갈 남사 스님들께서 많이 동참하시어 불조(佛祖)의 본래 면목을 바로 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며, 아래 안내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이번 “육조단경” 특강은 동안거 해제때 강의한 육조단경에 이어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 일 시 : 2011년 8월 22일(월) ~ 26일(금) [5일간] 오후 2시
- 장 소 : 고운사 선체험관
- 특 강 비 : 일십만원 정 (₩ 100,000)
- 참가대중 : 4부대중 누구나...
- 저희 고운사에서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가운데 지난 동안거 해제 강의부터 “승려연수교육에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을 수료하시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 문 의 : 종무소 ☎ 054)833-2324

☎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